



상반기 진호국가 불공 입재

2월 19일부터 49일간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불공 정진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의 안위를 진호하고 나아가 난세에 있어 참다운 불제자로서의 생활에 진력하기 위한 상반기 진호국가 49일 불공이 2월 19일부터 전국 각 사원에서 전 교도들의 동참으로 입재하여 오는 4월 8일까지 봉행된다.

이 기간동안 전 교도는 [수호국계주 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수호국계주 진언 [옴홀야호사]를 지송 정진하게 되는데 올해는 특히 경제회복과 사회평안을 기원하여 현재 국가가 당면한 현안을 진언염송공력으로 극복하고자 일심 발원한다.

종조 원정대행사께서 해방 이후 도탄에 빠진 나라와 겨레가 진정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백좌강화와 팔관법을 설치하여 국가를 진호하였던 전통을 되살려야 하며 따라서 조선조 이래 단절된 전통 불교의 중흥만이 절실하다는 인식으로



▲ 본 종의 진호국가불사는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법회. (사진은 지난해 9월의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의 한 장면)

발흥하게 된 이 진호국가불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습합이 밝혀지고 있다.

신라 이래 고려조까지 상당 기간 국가적 행사로 봉행되었던 진호국가불공

은 안타깝게도 현재 그 의식이나 의례 등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본 종의 꾸준한 연구의 성과로 점차 의례가 정립되어 가고 있어 한국불교의 전통복원과 아울러 현대사회에 적합한 의법

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한해 동안 불교계는 합심하여 국난극복을 위한 기원법회를 각 종단 별로 전국 각지에서 순회 개최한 바 있다.

이 기원법회는 경제적 위기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과 신념을 불어넣고 흐트러진 민심을 합심케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였다. 특히 작년 9월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된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는 불교계 여타의 종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통불교 의식에 근거한 진언염송으로 정통하게 치루어져 불교의식의 새로운 모범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총기 28년 상반기 진호국가불공 입재를 맞아 종령님께서는 특히 "재난불생 산업발전과 국운융창을 서원할 것"을 교시 하셨다. 전 교도는 이에 맞춰 금강처럼 단단한 원력으로 진호불공을 드려야 할 것이다.



종조 원정 대행사 진영

다시 듣는 종조님 법설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는 조직과 계계를 갖춘다 ②

인도의 대승불교는 중관파와 유식파의 두 파로서 철학체계를 수립하고 나란타대학을 중심으로 번영하였으나 양파 모두 밀교에 귀착하였다. 즉, 일즉 일체의 완전한 조화의 세계의 이론적 실천적 실현이다. 가장 비근한 본능적 무반성의 동물적 생활과 일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공리적 생활에서부터 윤리도덕의 단계를 거쳐서 인간의식과 자연과학과의 발전관계를 더듬으며 소송에서 대승으로 고요하면서 최후에 절대조화에 도달하는 것이 밀교이다.

따라서 밀교 가운데에는 가장 저급한 욕망과 가장 숭고한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잡연(雜然)하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저마다의 가진 곳에 있으면서 전체가 일대조화를 구성하여 일대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잡음이나 부조화음도 모두가 오케스트라의 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원시적인 생활로부터 가장 발달한 차원의 높은 사상과 체험에 이르기까지 그 도중의 모든 단계를 극복하고 절대정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밀교다. 밀교는 인도불교에서도 중관파 및 유식파의 당면한 귀결이었다. 즉 소송, 대승의 모든 교의와 실천을 밟은 뒤에 비로소 밀교가 성립된 것이다. 라마교에서도 구사 중관 유식 등의 일정한 과정을 다년간 학습한 후에 비로소 밀교를 배우는 것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밀교를 최상승(最上乘) 또는 금강승(金剛乘)이라고 하는 것이

다. 밀교는 의계를 준수하고 염송을 함부로 즐기거나 진언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밀교신앙은 한 가지로 전일(專一)해야하고, 삼보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밀교의 신앙은 대체로 대일신앙, 관음신앙, 약사신앙, 지장신앙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된다. 즉 밀교에 입문하여 어느 정도 수행이 궤도에 오르면 결연관정(結緣灌頂)이라는 의식으로 자기 신앙대상인 불보살과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투화득불(投花得佛)이라 한다)

그리고 밀교의 전달은 자격이 있는 아사리가 면면상대하여 정식으로 수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좋은 삼밀과 좋은 의계의 밀교를 선택하여 믿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교법의 우열을 알고 가려서 믿어야 하며 법신불과 제불보살의 만다라를 믿고 결연한 자기본존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지 인간을 상대로 믿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스승과 교도는 인간인 이상 때로는 과오도 있고 의견의 대립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다가 그것이 감정이나 증오로 변하면 신앙과 혼동하고 관련지어서 불과 법을 비방하고 화를 입게 되기 때문에 믿음과 시비, 또는 본존과 인간을 혼동하지 말고 별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밀교의 진언수행서는 교법과 교칙·의계에 따라 신행해야 하는 것이다.

본 종 위탁운영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개관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 본 종 주최 · 강남구청 주관



▲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개관식 장면

본 종이 강남구로부터 위탁받은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가 개관했다.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 본 종의 총지와 총리원장, 효감 법장원장, 종단협의회 남정스님, 불교텔레비전 이사장 신허스님, 지역 구청장과 구의원, 서삼목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 강동연 의원 등 지역주민 오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중단인 본 종의 총지와 총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꾼으로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처럼 보살피고,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강남구의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며, 전국 최고의 복지재단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인사말에서 "강남구의 효심을 모아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로 노인 복지관을 잘 운영할 것이고,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효도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가족화로 노인들의 소외가 심각해지고 어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차에 역삼동 교통 편리한 곳에 개관을 한 복지센터는 개관 몇 달 전부터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본 종에서 관리, 책임을 맡게 되는 복지센터 개관의 의미는 참으로 크다. 역삼동에 유일한 재가노인 복지센터로 '주간 보호소' (매주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실, 사회교육프로그램, 노인정, 취미교실, 치료레크리에이션, 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식과 간식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노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며,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작정이다.

개관식을 마치고 시설을 둘러본 지역주민들은 최첨단 의료시설과 편리하고 깨끗한 복지센터 내부에 놀랐다. 복지센터 개관 준비로 바빴던 실무자 서동석 총무부장은 "처음으로 복지센터를 맡아서 여러 가지 미미한 점이 많았지만, 불심 하나로 노인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노인들의 입장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해나갈 생각"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프로그램 참여는 02)564-9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사리 전법관정 수계

지난 1월 29일, 본산 총지사



▲ 아사리 수계를 받은 뒤 종령 특정 대승에게 합장례하고 있다.

본종 총리원과 중학교교원은 지난 1월 29일 '아사리 전법수계관정'을 본산 총지사에서 봉행하였다. 이날 아사리(밀교의 스승)를 수계받은 시무(예비승)들은 총 7명으로 지난해 5월 29일부터 금년 1월 28일까지 7개월간의 시무 수행을 마치고 중생교화의 대도를 걷게 되었다.

▶ 관련기사 7면

자연산 상황버섯!

각종 암과 고집병의 치유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상황버섯의 효능

▲ 면역기능향진과 해독작용의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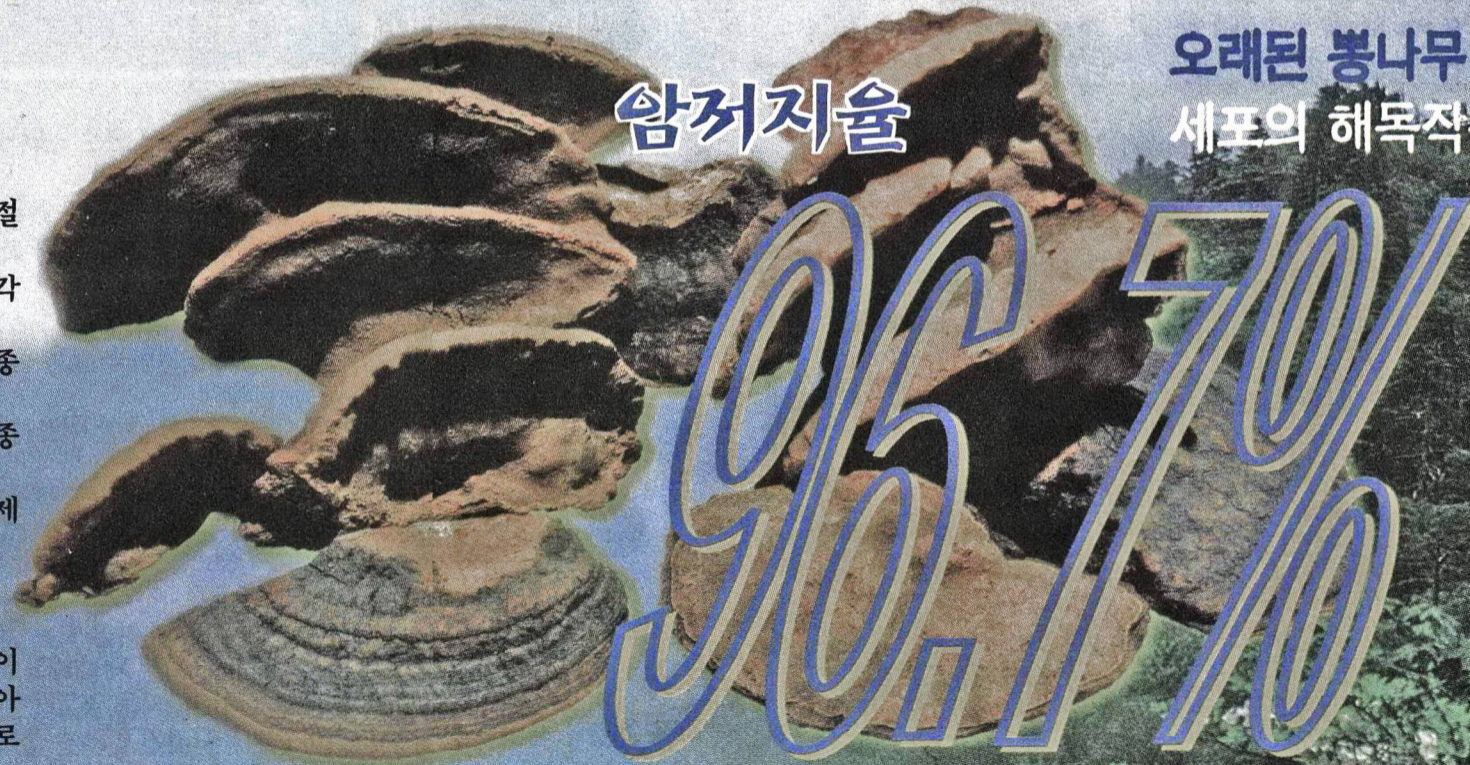
1. 소화기 계통의 암, 간암등의 각종 암의 절제수술후 화학요법을 병행할 때
2. 자궁출혈 및 대하, 월경불순을 포함한 각종 부인병
3. 심한기침, 간질환, 위통, 편두통 등의 각종 통증
4. 심한기침, 간질환, 위통, 편두통 등의 각종 통증
5. 빈혈의 예방과 치료, 체력 강화 및 숙취 제거, 변비에 탁월한 효과

▲ 암에 대한 약리학적 효과

- 약리적으로 체내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이 있어 항암 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암과 다른 병과의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상황버섯의 좋은점

1. 먹기가 좋고
2. 직접 자신이 제조할 수 있다는 점
3. 효과가 생각이외로 빠르고
4.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



삼저지술

96.7%

상황버섯

수입원 : 대륙무역상사
판매원 : 유원건재약품
연락처 : 011-304-4088

오래된 뽕나무 밑등에서 자라는 상황버섯! 세포의 해독작용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자연산 상황버섯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전화를 주시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社 說

‘호국의 참된 의미를 새기며’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조선조 이래 단절된 정통불교의 창조적 계승과 대승불교 이념의 현대화를 주창하시며 본 종단을 세우신 뜻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의식은 말할 것도 없이 진호국가불사일 것이다.

돌이켜보건데 우리 민족은 내외의환에 시달리면서도 세계사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유구한 단일국가, 단일민족의 역사를 지켜왔다.

외적의 침탈에 강토가 유린되고 국권을 빼앗긴 적도 있으나 우리의 기나긴 역사로 볼 때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당쟁으로 국력을 낭비하여 역사의 오점을 남긴 적도 있으나 그것 역시 역동적으로 발전한 민족사에 있어 넘어야 했던 한 고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저력은 무엇보다 민족의 정신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근간이 된 ‘불교’에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한말 변방에 불과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 민족 국가로 우뚝 서게한 저력도, 아반적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겨레를 진호한 저력도, 대승불교의 호국안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단절되고 멸실된 진호국가불사의 전통을 있고 대승불교의 이념을 널리 펴신 뜻은 근대 이후 희미

해진 민족정신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그러한 정신적 일체감을 초석으로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물질적 정신적 공황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일체감을 상실한 채 국가적 위기 극복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혼돈의 늪에서 헤매고 있음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진정 진호국가불사를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절실하다.

일례로 보험금에 눈이 어두워 자식의 손가락을, 자신의 발목을 절단하고 심지어 남의 목숨까지 앗는 반인륜적 작태가 횡행하는 현실은 단순히 경제적 파탄에만 근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치관의 혼돈을 부채질하는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부강할리도 없겠지 만, 그렇게 부강한들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극히 한 순간의 호강으로만 남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허세와 곧이어 닥친 몰락이 그 생생한 교훈이다. 불타는 집에서 장남 감에 홀려 있는 중생을 구하려는 일념의 발현으로 울 삼반기 진호국가불공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정신이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진정한 호국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인 사

- 승직발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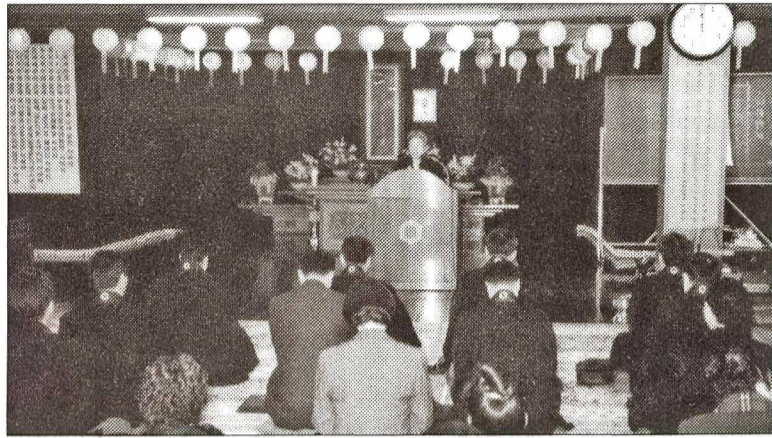
- 강재훈(법명:인선, 승직:대법사, 근무:통리원), 김기홍(지공, 법사, 총지사), 이극웅(지공, 법사, 밀행사), 김양웅(무공, 법사, 운천사), 최순일(경월, 법사, 정각사), 이재호(시정, 법사, 법천사) 1월29일자 발령.

- 시무발령 -

- 권옥생(진일심, 시무, 통리원) 12월 18일자 발령.
- 박기산(수현, 시무, 관음사) 1월 29일자 발령.
- 총무원발령 -
- 윤승호(통리원 총무부 근무, 1월1일자 발령.)
- 손옥균(통리원 재단사무국 근무, 1월1일자 발령.)

종조탄신봉축법회

지난 1월 29일, 본산 및 전국 사원에서



▲ 총지회 통리원장께서 종조 탄신을 기념하는 봉축사를 하고 있다.

본종의 창종주이신 원정 대성사의 탄신을 기념하는 제92주년 탄신봉축법회가 지난 1월 29일 본산 총지사와 전국 사원에서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법회에서 종조님의 탄신을 봉축하고 이 땅에서 사라졌던 밀교를 중흥시킨 종조 원정 대성사의 위업을 기렸다. 또 모든 종도들은 종조님의 유훈을 되새기고 받들어 제2의 창종을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부도난 불자기업 2년만에 재기

‘삼우화학’에서 ‘다물개발’로 다시 힘찬 가동

본 종단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교종단협 소비자보호위(위원장 안효강 법장원장)가 지난 97년 10월부터 재기를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주식회사 삼우화학’(대표이사 배호성, 56세)이 부도로 도산한지 2년 6개월만에 ‘주식회사 다물개발’로 다시 일어섰다.

현재 경북 문경시 진정리 630-4번지 산양농공 1단지 내에 공장을 확보하고 정상납품을 위한 시험가동 중인 다물개발은 시제품이 성공리에 생산되면 곧바로 미국의 D사와 국내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가공회사 N사, 96년 10월 부도 이전까지 거래하던 Y사 등



▲ 납품을 위한 기계 가동 작업이 한창이다.(삼우화학 점촌공장)

본 종단 운영 ‘불교소보위’의 중재·지원과 임직원의 재기 의지가 하나되어 결실 맺어

과 거래를 정상화하여 통기성 방수용 필름을 연간 120톤 가량 생산케되어 예전의 규모를 회복하게 될 전망이다.

삼우화학은 국내에서 최초로 일회용 생리대, 기저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방수용 필름을 개발하여 연간 4천만불의 수입대체를 실현한 유망 중소기업이며 특히 91년도에는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던 최첨단 기술을 자체 개발에 성공, ‘통기성 필름’을 양산하여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대체는 물론 외국에 많은 물량을 수

출하게 된 모범적인 회사였다. 그러나 국내 굴지의 생리대, 기저귀 제조사인 Y사와의 계약에 의해 생산물의 전량 납품하였으나 Y사 측의 부당한 거래로 공장 가동률의 저하와 이로 인한 적자의 누적 등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Y사와 H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대기업의 횡포에 의한 우량중소기업 도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종단협소보위는 사회적 경제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Y사와 H사의 부당한 거래에 엄중 항의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상당기

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결과 Y사의 점향적인 자세로 삼우화학이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케 되었다.

배호성거사도 본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에 깊이 감명을 받아 ‘불자기업으로서 흠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업의 이윤을 교계에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력을 밝혔다.

현재 정상적으로 공장가동하기에는 적지 않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무·신규종무원 신도(新度)교육 실시

지난 1월 22일~26일, 중앙교육원 주최

예비승인 시무의 아사리 수계를 위한 ‘신도교육’(新度教育)이 지난 1월 22일~26일, 중앙교육원 주최로 총지불교대학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이번 시무수계 대상 종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통리원의 신규종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시무들의 경우 지난해 5월 시무수계 전에 실시되었던 1차교육에 이어 2차로 실시된 것으로 보수교육의 형식을 띤 교육이었다. 강의는 종령 특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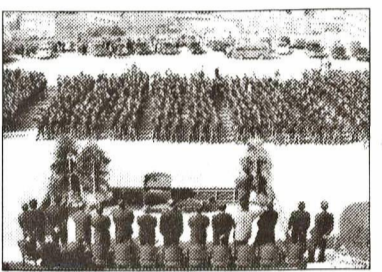
대종사의 ‘스승의 사명’, 총지회 통리원장의 ‘불공과 교화’, 효강 중앙교육원장의 ‘입사(入師)와 수행’, ‘수행과 밀교’, 김진태 연구원의 ‘불교개론’, 이종석 연구원의 ‘대일경의 중심사상’, ‘업사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통리원의 ‘단불사의계에 대한 소고’ 등이었다. 종무행정업무에 관한 교육으로 통리원 지성 총무부장의 ‘종합실무’ 교육도 있었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시무 7명, 시무종무원 2명, 신규종무원 2명 등 총 11명이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침...

종립학교 졸업식, 지난 2월 12일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의 제29회 졸업식이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동학교 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생 수는 총 320명. 최우수상인 이사장에는 최형욱 군(3학년7반), 우수상인 학교장상은 권도형(3-6), 양정모(3-5), 조여환(3-8)군 등이 수상했다. 또 1년간 학급생 전원이 개근한 3학년3반 김진화 선생님이 교사표창을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는 내외빈 지역 인사와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수성(개천사 주교) 재단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졸업생과 뒷바라지에 애쓰는 학부모들의



▲ 종립학교 동해중학교 제29회졸업식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금년 8월 정년을 맞게되는 김병준 학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그간의 교직생활을 돌아보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등 정

■ 종령 특정 대종사

- 특정 종령께서는 지난 1월 29일 ‘아사리 전법관정 수계’를 증명하였다.
- 지난 1월 28일 대구·경북교구 스승님들의 ‘新年 問安賀禮’를 받으셨다.

■ 효강 법장원장

- ‘종단협의회’ 회의 참석
- 지난 2월 12일 개최된 ‘종단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주요안건으로 ‘승단발전연구위원회 구성’ 등 6개안을 논의하였다.
- ‘불교TV이사회’ 참석

■ 총지회 통리원장

- ‘국악교성곡’ 음악제 참석

총지회 통리원장은 지난 27일 오후7시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국악교성곡’ ‘선음악과 해초’ 오카리나 연주 등 해초스님의 생애와 구도여정을 그린 기념 음악회에 참석하였다.

· 「한·일불교우호회의」참석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한일불교우호회의’에 참석하였다.

■ 종립학교 이사장 수성 대장사

- 「재단이사회」 개최

종립학교 이사장 수성 대장사는 지난 2월 12일 종립 동해중학교 교강실에서 제62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산안처리와 종단의 종교교육 교사파견, 교감 특별승진 등을 의결하였다.

“불교 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TV인터넷의 사찰 전산화

- 기존 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 동작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인터넷으로 통한 설법 듣기 가능
- 신행상담/불법공부/신도와와의 대화가능
- 뉴스, 홈쇼핑, 경제, 문화등의 다방면의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칼라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 간의 대화 공간 제공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TV인터넷의 강력한 기능

- 비디오와 같은 손쉬운 연결
-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른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가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
- 인터넷망을 이용한 운영체제(CS)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고장의 염려없이 뛰어난 안전성
- 기존의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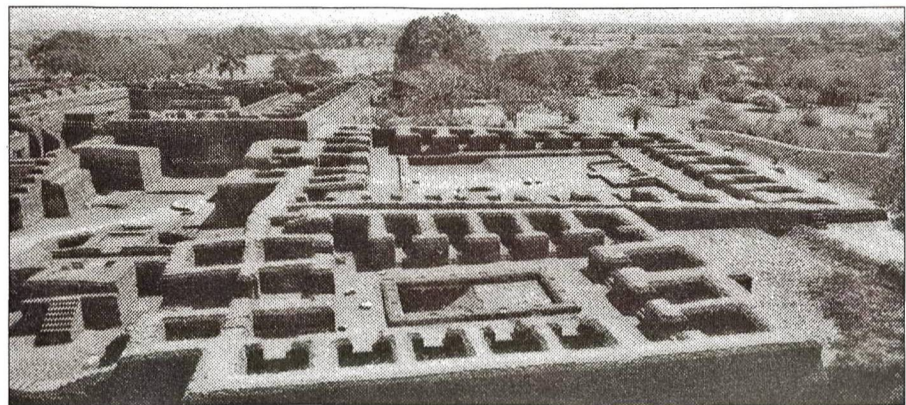
▲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합니다

· 사찰정보화 협력업체

(주)현대불교신문사 : 02)737-8881(대표)
부다피아 직통 : 02)732-1520

밀교개론 10

밀교는 대승사상을 독특한 실천체계로 전개



▲ 학문연구 중심지 나란다 대학. 대승종기에는 밀교 교학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예를 들면 원래 바라문교의 의례였던 호마를 불교에서 끌어 들여 작법으로서 행하는 호마를 '호호마'라 하고 호마의 불로써 스스로의 미(迷)를 태워 버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목적을 지닌 것을 '내호마'라 부르며 후자를 더 높은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대일경에 설해져 있는 것이지만 비슷한 예로는 본래는 무기였던 '금강저(金剛杵)'에 사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내면화

하며 불교화 한 점 따위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밀교 속에서는 그리 진귀한 것이 못된다. 또 본존(本尊)이나 불상(佛像), 보살상 앞에 향, 꽃, 촛불, 등명, 공물 등을 드리고 경전을 봉독하는 것으로 밀교 의례를 행하고 제재초복(除災招福)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중기 밀교경전에 이르러 본존(本尊)과 행자(行者)와의 융합이 도모되고 행자 그 자신이 본존

이 되는 성불(成佛)이 목적이 된다. 즉 그것은 예배하고 공양하는 대상이 외적(外的)인 것에서 내적(內的)인 것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에서는 「불공(不



효강 법장원장

본존과 행자의 융합 도모 행자 자신이 즉신성불

空)역(譯)의 밀교경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 교설(敎說)을 통하여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대승경전이나 논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승불교의 유명한 학장(學匠)들도 사상적으로는 중관(中觀)이나 유식(唯識) 혹은 여래장(如來藏) 등에 의지하면서도 실천면에서는 밀교의 수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대일경·금강경 등 중

기밀교경전에 따르면 대승불교사상 그대로 생생하지 않고 경전 각각의 독자적 실천체계로 짜여져 구체적인 인(印), 진언(眞言) 또는 유가관법이 되고 의례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후기밀교에도 계승되어 한층 더 진전되었는데 밀교관법의 일종인 오상성신관(五相成神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空)이라든가 자성정정심(自性淸淨心)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이 월륜(月輪)이라든가 금강저(金剛杵)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체험되고 파악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대승사상의 의례화(儀禮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육바라밀의

실천과 생활화 5

범공 (만보사 주교)

정시(定施) · 차시(差施)의 구체적 방법

㉞ 정시(定施)

매일 정시할 정시 금액은 자신의 경제형편, 즉 자신의 년 평균 수지(收入·支出)를 감안하여 액수를 정하고 당년의 목표와 서원에 걸맞게 본인이 적절히 조정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필자의 사견입니다) 공덕이란 성심(誠心)을 다 하는데 이루어 지는 것인바 자신의 형편에 최선을 다한 액면을 정하면 좋겠고, 매년 해가 바뀌면 재조정(再調整)하되 특별히 생활상의 변동이 없다면 비록 소폭(小幅)일망정 점진적으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해 간다면 복업의 증장(增長)이 한층 더 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시(定施)는 매일 빠지 말고 하되 가급적 아침정송(定誦)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㉟ 차시(差施)

차시법은 위의 정시(定施)와는 또 다른 성격의 회사법입니다.

소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우환·질병·위험 등이 예상되거나 조짐이 보일 때, 차시하고 서원해 주면 신기하게도 그 일이 예방, 또는 속히 제멸(除滅)되기도 하며 한편 보시공덕과 자비공덕을 아울러 짓게 되는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조님의 정시계송을 음미해 보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발을 갈아 씨를 심고, 비료하면 수확 많다. 삼밀수행 종자갈고, 단시행은 비료갈에 삼밀단지 관련되어 어느하나 부족하면, 물심양면 완전공덕 이뤄지지 않느니라 세상사람 수단으로 재물수입 하지마는, 삼밀행자 정시해야 인무진에 수입된다. - 종조법설 -

만다라 소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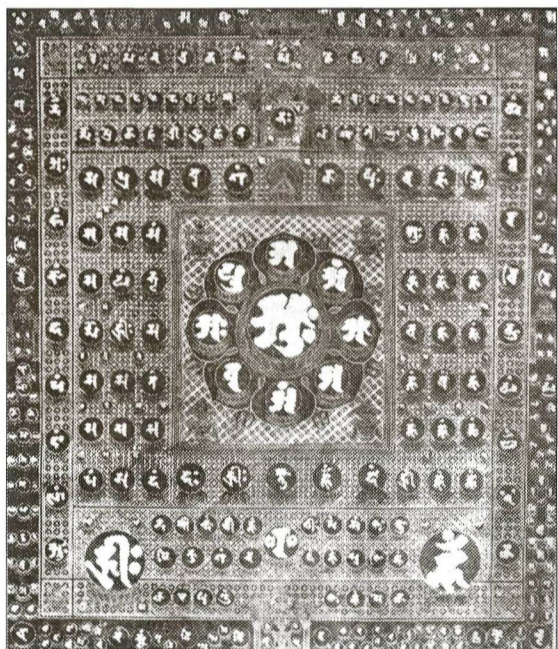
만다라와 총지종의 교상(敎相)

종조님께서 형상화한 만다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불성만다라(佛性曼荼羅), 자성만다라(自性曼荼羅)를 강조하신 것이니, 어찌 우리에게 만다라가 있다거나 없다고 할 것이요, 만다라가 종단과 상관 있다 없다 할 것인가. 단지 신앙대상으로써 형상만다라를 모시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종조님께서 "어느 것 불상 아닌 것이 없으며, 어느

만다라의 불이사상은 남녀평등사상 육자진언은 만다라의 총섭

것 불공 아님이 없고, 어느 것 설법 아님이 없다"고 법설하셨다.

또, 밀교를 대표하는 양부대경을 소의로 한 태·금양계만다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밀교의 만다라는 우주의 본질이 성취한 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라 전제하시고 "그것이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 남녀이다. 거기에는 남성의 덕과 여성의 덕을 나타낸 금강계와 태장계가 있는데, 이것이 돌이면서 돌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여 만다라의 불이사상(不二思想)의 교학적 이해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



▲ 태장계 종자만다라. 종자만다라는 불보살의 덕을 나타낸 상징적 표상이다.

대사회의 우리에게 남녀의 평등을 역설하셨다. 계속해서 설하시기를 "금강계의 본질은 지능의 덕으로써



총지화 통리원장

동적(動的)인 완성력을 뜻하며, 태장계는 애정의 덕으로써 정적인 생산력을 뜻하는 바, 전자는 곧 남성이요, 후자는 여성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돌이면서 돌이 아닌 불이의 관계이다"고 부연(敷衍)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본존으로 삼고 있는 육자진언주는 만다라를 총섭한 것으로, 마니는 보주로써 남성을 뜻하는 금강계요, 반메는 연화로써 여성을 뜻하는 태장계이며, 흙은 최과를 뜻하는 일체금강보살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자대명왕진언은 곧 우주요, 바로 만다라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 육자주를 태·금양부만다라에 배대하면서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에 비유하였다. 태·금 불이를 통해 남녀평등을 설하신 법설에서 교리면에서나 실생활면에서 만다라는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한가지, 우리 종단에서 만다라의 교의(敎義)가 종단의 교상(敎相)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비로자나불의 성질, 모습, 활동을 말하는 체(體)·상(相)·용(用)의 교리 가운데 비로자나부처님의 네 가지 모습(상)을 그 교상(敎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만다라의 당위성을 엿볼 수 있다.

(다음호에는 본존만다라·종자만다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시법은 일체 죄장·재난소멸, 복업증장의 구체적인 실천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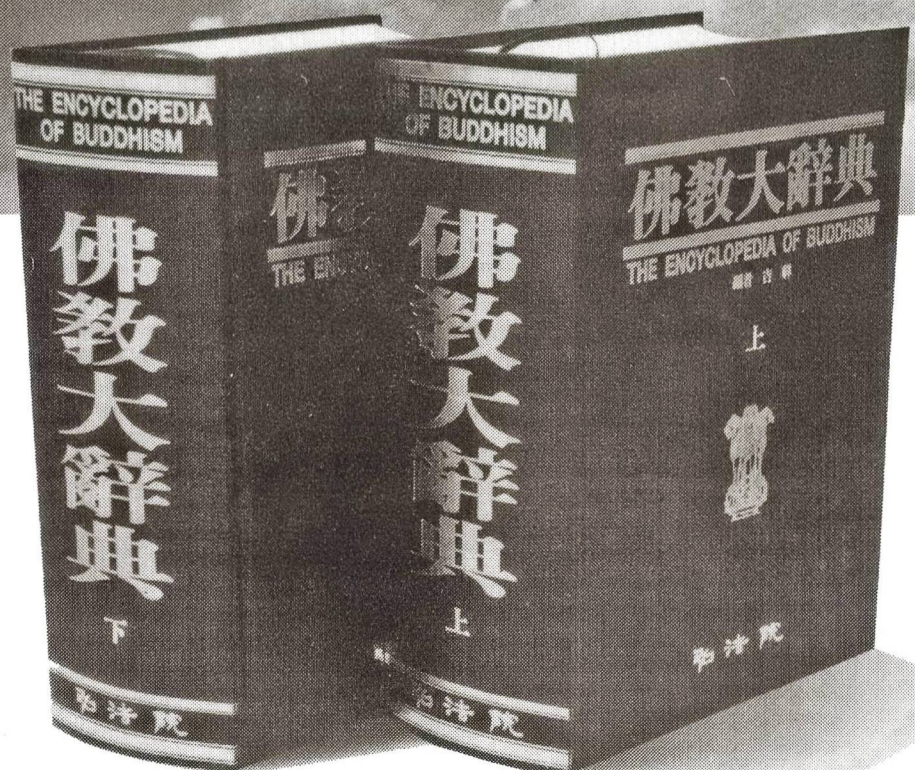
우리들의 생활이란 것이 거의 매일 별 변동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바탕으로 살아가지만 때로 예상 밖에 크고 작은 일들이 무시로 발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나 또는 미리 예정된 큰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상응한 회사로 예방 또는 증익케 하는 '대응가약(對應佳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작게는 자기 자신을 비롯 가족·친지·동료 등에 이르기까지 일신상에 일어나는 각종 질병과 불의의 재난들을 비롯, 크게는 이웃과 사회 국가에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대

이상의 종조님 계송의 뜻을 되새겨 본다면 정시(定施)는 작물의 밑거름(基肥)같고, 차시(差施)는 작물의 웃거름(追肥)같아 아무리 좋은 종자(種子)를 심었다 하더라도 거름을 하지 않으면 그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 우리 삼밀행자는 항상 이러한 단시법(檀施法·定施, 差施)을 생활에 습관되게 한다면 공덕히 속히 성취될 것을 당연한 결과 일 것입니다.

(다음호에는 '십일(10/1)회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불교대사전은 불교전문서점과 弘法院에서만 판매합니다.

불교대사전이 있으면 難解한 경전이나 불교서적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찬기간 10년, 제작비 7억원, 표제어 6만 5천여개.
- 기존의 사전과는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엮었습니다.
- 넉넉하고 커진 활자, 시원한 版面,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文例와 표현!
- 한글세대를 위해 한문은 괄호안에 넣고, 범어·팔리어·티베트어 등 원어를 찾아내어 표시하였으므로 범어사전역할을 합니다.
- 고도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살린 살린 불교대사전은 불교의 세계화·현대화를 위해 영국 옥스포드판 漢英佛學大辭典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圖書 弘 法 院 出版

신한은행 : 324-12-407937
농 협 : 053-01-102503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TEL (02) 739-8745, 734-7614 / FAX (02) 735-2344

지상설법

輪廻에서 벗어나려면



실보사 주교 해암 대장사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말한다. 그래서 중생들은 누구나 행복(幸福)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뜻과 같이 되지 않는다.

왜일까? 그 까닭은 바로 인과(因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원히 고해라는 바다에서 해엄쳐 나올 수는 없는가?'

아니다. 누구나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영원과 자재로움과 밝은 삶을 얻을 수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해탈을 성취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 즉 삼세(三世)의 인과법(因果法)을 말씀하셨다.

어 지는 것이 "과(果)"이다. 씨가 좋고 발이 좋으며 농사를 잘 지었으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나쁜 씨를 나쁜 밭에 뿌리고 게으름을 피웠다면 수확이 나쁜 것은 정한 이치이다. 심은대로 거두고 지은대로 받는 것. 자업자득이요 선인선과이며 악인악과라고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도리를 불자라면 누가 모를까만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옛 말씀에 삼척동자도 알지만 팔십노인도 실천은 어렵다고 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이요, 불법(佛法)의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과거에 맺

인과법을 굳게 믿고 선인 선과의 업을 지었을 때 윤회에서 해탈...

적극적인 자세로 복된 생활을 영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진리를 믿고 내가 지은 업(業)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받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 간다면 틀림없이 윤회(輪廻)란 고해(苦海)에서 벗어나서 복(福)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오늘은 어제의 업장이요, 내일은 오늘의 상속이든 전생(前世)은 금생(今生)의 과거요, 내생(來生)은 금생(今生)의 미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어제는 돌아볼 줄 알면서도 전생은 묵살하고, 내일은 기약할 줄 알면서도 내생은 잊고 사는지!

그것은 아마도 전생과 내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게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순간에 너무 집착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자명한 이상, 전생·금생·내생의 삼세윤회(三世輪廻)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삼세윤회는 인(因), 연(緣), 업(業), 과(果)의 넷으로 구성된 필연적 법이기 때문이다.

인연업과(因緣業果)! 인(因)은 씨앗이요, 연(緣)은 곧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며, 업(業)은 뿌린 씨앗을 기르는 행위이다. 이렇게 "인"과 "연"과 "업"이 모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영글

은 업을 푸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업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매듭을 풀고, 풀 매듭, 즉 업을 더욱 원만하게 회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악업을 맺어서 더 많은 매듭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맷느냐 푸느냐. 이는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물질적인 이익만을 탐하여 모든 것을 상대적인 감정과 자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매듭만 늘어날 뿐입니다.

절의 뒷간에 가면 입죽진언(入廁眞言) "옴 히로다야 사바하" - 비우도 또 비우니 큰 기쁨일세, 탐진치 삼독도 이와 같이 버려 한 순간의 허물도 없게 하리라 -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버리기 어려우니 이렇게라도 해야 풀릴 것 같은 중생의 바램이라 여겨집니다.

인간은 한 번 옮겨 쥐었다 하면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괴롭다고 하면서도 못 버리는 것이 중생입니다.

불자 여러분! 허망한 탐욕으로 매듭지어 고해의 바다에 뛰어들지 말고 비우고 비워서 맺힌 매듭 풀고 윤회 고통에서 모두 해탈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3.1운동 제82주년

특집

그 날을 되새기며...

3.1 운동, 자주독

사상 우리 민족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온 민족은 드물 것이다. 반만년의 역사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피와 눈물과 한숨으로 엮여진 처우의 역사였다. 외적의 침입, 내란의 분제, 한때는 국토를 빼앗기기도 했고, 내정의 간섭도 받았으며 끝내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던 비운의 민족이었다.

일제의 국권 강탈로 인하여 애국선열과 독립군이 흘린 피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며 민족정기로서 영원히 우리 민족과 함께 불멸할 것이다. 또한 3.1 독립군중은 우리 민족의 굳은 기백의 불굴의 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린 민족의 장거였다. 광복후 북한공산당과 대치한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은 내일을 향한 우리 민족에게 생생한 교훈이 되고 있다.

로 하는 한편 자금을 모금하고 독립선언서를 초안하여 사전에 국내외 지도층과 연락하면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여 민족대회 소집청원서 및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국문·일본·영문으로 작성하여 2월 8일 각국 공관·일본정부·조선총독·언론기관과 학자들에게 우송하여 한국 독립의 대의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날 도요교의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11명의 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때 일제 경찰이 출동했으므로 맨주먹으로 대항하여 싸웠다. 이같은 2·8 독립선언은 일본의 수도에서 감행했다는데 의의가 있

민족 자주·자결의 항쟁, 3·1운동!

독립운동은 경술국치 이전부터 의병 봉기 등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3·1운동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 국내외의 각계 각층에서 독립을 위하여 일제의 잔인한 탄압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가 침략 악법을 제정할 때마다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은 분개하였고, 그것은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민족운동으로 발전되어 갔으며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몽운동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자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국외로 나간 독립운동가들은 곧 적극적인 투쟁을 시작하였으며 국내에 남은 애국인사들은 암암리에 항일 독립사상을 고취하면서 독립운동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러할 때 1918년 미국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발표와 곧 개최되는 파리 강화회의, 또 재일 유학생의 2·8독립선언과 고종의 사인불명 등 항일 기운이 점차 고조되어 드디어 거족적인 3·1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지식층과 종교단체 학생들이 각각 그 계획을 세워 국권회복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교육의 영향으로 비교적 세계정세에 민감하고 일제의 통치에 비판적인 지식인·종교인·학생들은 국립운동 대열에 결속되어 강력한 조직을 앞세워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거족적으로 일제히 봉기하여 전세계에 한민족의 독립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3·1운동의 서막, 2·8 독립선언



종로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서울 시민. (자료제공:역사편찬회)

1919년 2월 8일 한국인 일본 유학생들은 도쿄에 있는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 당시 일본에는 조선기독교 청년회, 조선 유학생 학우회, 조선학회, 조선여자 친목회 등의 애국단체가 있었다. 그 중 조선 유학생 학우회는 1912년 10월 27일에 조직되었으며 '학지광(學之光)'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항일사상을 고취해 왔다.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일본 내각과 각국 공관에 청원할 것을 결의하여 그 실천자로서 최팔용·송계백·전영택·서춘·최근우의 10명을 선출하였으며 전영택이 병사함으로써 이광수·김철수를 추가 선출하여 11명이 되었다. 이들은 독립운동 추진 방법을 협의하여 독립선언서를 일본 정부와 각국 공관에 보내기

며 3·1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불교계의 3·1운동

천도교·기독교·학생층의 개별적인 운동계 획이 통합 단일화 되고 여기에 불교계의 가담함으로써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의 인선이 본격화 되어 대표자33명을 선출하고 거사일을 3월 1일로 결정하였다.

독립선언문은 최남선이 초안하여 최린에게 전달되었다. 그 뒤 원고는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 인쇄소에서 인쇄되었으며 이것은 2월 27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만 1천 장이 인쇄되었다. 그리하여 이 인쇄물은 각 조직에 분배되어 전국 중요 도시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독립 통고문을 일본 내각 총

불교개설 5

근본불교의 교설 ①

정리: 대현(법장원연구원)

근본불교란 석존의 재세 당시로부터 불멸후 100년까지 기간의 불교를 말하며, 주요 사상으로는 3법인·4성제·8정도·5온·12처·18계·업설과 윤회설 등이 있다.

인도 불교사의 흐름은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로 이어지는데, 근본불교는 석존 재세시와 불멸후 1세대 수행자들이 이끌어 온 시기이다. 그러므로 석존의 육성을 직접 체험하였거나 석존 재세시의 수행법을 그대로 유지해 온 수행자들로 구성된 기간으로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주요 경전으로는 <아함경>, <수타니파아타>, <법구경> 등이 있다.

근본불교의 특징은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윤리적이고, 인간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보편성과 개방성을 띠고 있다.

1. 삼법인(三法印)

불교의 근본교의를 세 가지로 나타내는 것으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佛法)인 정표', '법(法)인 증거'라는 의미이다. '諸行無常' 등의 세 가지 조건이 갖



▲ 인도 코살라국 사위성에 있는 기원정사의 승원 터. 석존의 교화지 가운데 한 곳.

추어지면 그 설은 올바른 불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불교에서 경전의 眞偽를 판정하는 표준으로 이 법인이 채용된

1) 제행무상(諸行無常) 心的·物的인 모든 현상은 한 찰나에도 생멸변화하여 常住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行은 조

한다. 無常은 常住의 반어로서 고정불변이 아니고 변화한다는 뜻이다. 無常에는 찰나무상(刹那無常)

삼법인은 유위·무위법의 존재방식과 불교의 이상경을 모두 말하고 있는 불교의 근본교의이다.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법인을 이해하면 불교의 근본사상을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는 여기에 '일체는 괴로움이다(一切皆苦)'라는 것을 합하여 '四法印'으로 할 때도 있다.

작의 뜻으로 無明을 근본으로 하는 身·口·意의 三業에 의한 조작을 말한다. 유위법은 緣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도 항상 변화하여 생멸하는 것이므로 천류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과 상속무상(相續無常)이 있다. ① 찰나무상: 한 찰나 동안에도 생·住·異·滅하는 것. ② 상속무상: 한 평생 동안에 생·住·異·滅의 四相이 있는 것을 말한다. 一期無常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無常은 허무주의적인 주관적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현상의 객관적 성질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감에 대하여 감상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는 없다.

2) 제법무아(諸法無我)

모든 법에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法(Dharma)이란 '의지하는 것', '지탱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깨법·법칙·원칙 등에 해당한다. 이것은 그 적용하는 범위에 따라 <보편적 진리>·<종교적 규범>·<사회적 규범>·<행위의 규범>·<윤리·도덕>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진리>·<가르침>이라는 용법 외에 (性質), 즉 어떤 현상을 성립시키고 있는 특성 및 그러한 성질을 지닌 <존재·현상>의 하나하나를 법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로는 有形·無形, 心的·物的인 모든 현상을 가리키지만, 정확하게는 意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철학용어인 <概念>과도 통하는 술어이다. 我(Ātman)은 영원불변하며

(常), 독립적으로 自存하며(一), 핵심적인 所有, 곧 主人公으로써(主), 지배적 능력이 있는 주체(宰)로 생각되는 영혼적 도는 本體的 實體를 의미한다. 모든 것에는 이러한 내가 없고, 내가 아니라고 설하는 것이 '제법무아'이다.

3) 열반적정(涅槃寂靜)

열반은 범어Nirvāna를 음譯한 것이며, '적정'은 니르바나를 意

譯한 것이다. Nirvāna는 '불어서 끄다', '불이 꺼진 상태'라는 의미이다. 곧 온갖 번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生死가 없는 절대적인 安樂한 理想의 境界를 가리키는 말이다. 번뇌를 여인 것을 寂이라고 하고, 썩어 끊어진 것을 靜이라고 한다. 즉 탐·진·치의 3독심이 사라진 열반의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밀교용어소사전

삼밀(三密)

삼밀(三密)이란 '비밀의 삼업(三業)'(입·몸·뜻)을 말한다. 곧 신밀(身密)·구밀(口密)·의밀(意密)을 말하는 것으로 현교에서는 범부로서는 헤아리지 못



▲ 삼밀유가 관행법 중 제결인법로 삼고 있다. 우리 총지중에서

삼밀은 밀교 수행의 기본

하는 삼업을 말하고, 밀교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여, 불타의 삼업·진어의 작용을 범부가 미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작용이므로, 중생이 불의 삼밀과 상응가지(이를 삼삼행등이라 함) 하기 위해 몸으로 결인을 맺고,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 마음으로 본존을 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기본으로 삼아 밀교는 삼밀가지수행을 수행체계의 골격으

도 삼밀유가관행법을 수행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삼밀이 어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일상생활에서 남을 이간양설하지 않고 좋은 말하는 것이 구밀이요, 성 안내고 환한 얼굴하며 남을 해하지 않는 것이 신밀이요,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해어려 주는 것이 의밀인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삼밀인 것이다.

현목의 세상읽기



그가 존경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 실장

사람만이 갖는 특성이 어찌 모르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인'이라 부르는 위인들의 대다수는 정작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고향에서는 그의 인품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였다. 이 개혁의 행진을 저해하는 일에 대해 추후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서울 퍼런 결의 역시 작년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고, 믿기지 않지만 과소비의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 자신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삼패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말을 하였다. 표면상으로는 나라가 위기로부터 벗어나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는 자부심의 발로였을 것이다.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공자가 한창 이름을 날리던 무렵 그의 제자 가운데 자공(子貢)은 이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함께 공자의 제자로 조금은 널리 알려진 자공(子貢)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런 미묘한 질문에 공자의 제자 자공은 이렇게 답했다. '은후, 양순, 공손, 겸손, 겸양의 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쓴 이래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현 정권을 일러 차칭인지 타칭인지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 그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을 넘겨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반세기 동안 요지부동으로 변하지 않았던 집권세력에 대항하며 절치부심 버리고 버려왔던 정권교체를 이룬 감격의 눈물이 아직 가시지 않은 기간이다.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그러나 한창 성장의 오르막길을 오르던 나라살림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던 무렵 정권을 이양 받은 현 정부는 감격보다 근심이 앞섰을 것이다. 막말로 잘해야 본전일터이니 정권을 인수받는 감격에 앞서 자칫 조금만 삐딱하면 돌팔매질도 감수해야 할 지경이니 그간 일년의 시간이 오죽했을까 죽히 짐작할만 하다.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청와대에 들어오고 난 이후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염집 살림에 벌이가 조금만 줄어도 머리가 회기 마련인데 나라와 백성을 책임진 자리에서야 여복하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현 정부의 지고지대한 화두는 경제회생이었다. 그 화두의 일단은 속으로 굶은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와 부정부패를 자초하는 사회 풍토의 철저한 개혁에 있었다.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그리하여 작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그렇고, 일주전 기자회견에서도 일관되게 사족일까?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그 정부의 수반이 말하길, 지난 일년의 성과를 각료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말인즉, 밥집을 자기 못하고 오로지 개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고 따라서 성과도 만만치 않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정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다. 재벌을 정리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의 개혁 행진이 오히려 국민이 뒤처지고 있다는 자평이다. 자부심을 넘은 자만이 아니길 바라는 심정 간절하다. 홍보의 부족이 아니라 실상이 어떠한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재벌, 공공부문, 실업문제, 비현실적 제도 등등의 개혁 그 어느 것이 과연 민중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길 바란다. 지도자에 대한 존경은 거기에서 나온다.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그리하여 작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그렇고, 일주전 기자회견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그리하여 작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그렇고, 일주전 기자회견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그리하여 작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그렇고, 일주전 기자회견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그리하여 작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그렇고, 일주전 기자회견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그리하여 작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그렇고, 일주전 기자회견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그의 결의와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나라살림의 지표가 지난 일년 동안의 나락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평점도 국제금융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립과 국권회복의 발로



◀ 옥중 유언 : 두 동생과 홍석구 신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 (자료제공:역사편찬회)

리대신과 의회, 언론계, 각 대학과 저명학자에게 우송하였으며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조선통독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기로 하여 2월 28일 밤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하여 거족적인 3·1독립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3·1운동의 진행상황

1919년 3월1일 민족 대표 33인 중29인(4인은 지방에 있었으므로 불참)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 시간인 오후2시가 되어가자 최린은 태화관 주인에게 조선 총독부에게 전화로 민족 대표 일동이 여기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지금 축배를 들고 있다고 통고하게 하였다. 일본 경찰대 80명은 드 통고를 받자 곧 출동하여 태화관을 포위하였다.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한용운의 식사를 들고 그의 선창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제창한 후 연행되어 갔는데 대표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일본 경찰이 인도하는대로 자동차에 분승하여 만세소리가 진동하는 서울 거리를 지나 총독부로 연행되어 갔다.

한편 이날 정오 경부터 탑골공원은 서울의 중등학교 이상의 남녀 학생4~5천명이 모여 엄숙한 독립 식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오후 두시 정각이 되자 팔각정 앞에서 드디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민족 대표가 예정을 바꾸어 이 식전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 단상에 올라가서 엄숙히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다. 군중 속에서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여 갑자기 탑골 공원은 만세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였다. 이것은 한민족 전체의 절규였다. 선언식을 마친 학생·군중은 곧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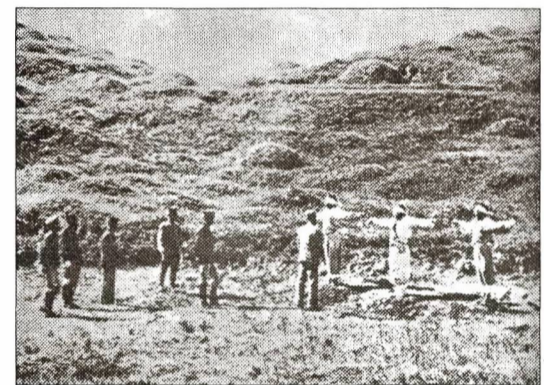
질서 정연한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이 시위행진은 남녀노소 모두가 가담하였으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밤 11시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계속되었다.

이러한 행사는 서울에서만 거행된 것이 아니었다. 3월 초부터 4월말까지 지방의 각 처에서 계속되었으며 전국의 학교까지도 파급되어 학생들도 가담하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

일제는 평화적인 만세 시위 운동에 대한 기본 방침으로 군중을 대량 사살함으로써 사태를 진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위와 탄압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였다.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보복은 대규모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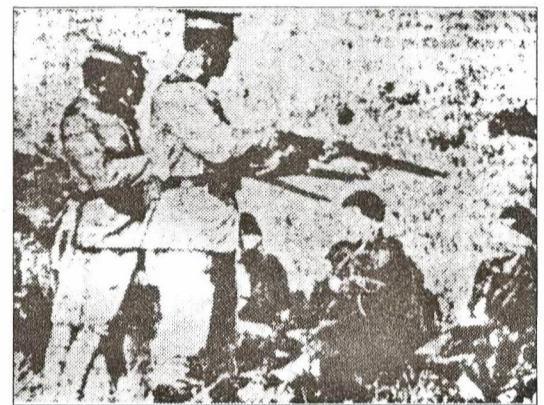


◀ 철도 습격 조선인을 총살하는 일본군. 당시 일본군은 재판없이 즉결로 총살형을 집행하였다. (자료제공:역사편찬회)

였으며 주동 인물에 대해서는 극악한 고문을 가한 후 식민지 통치법에 따라 처형하였다. 일제의 고문은 잔악무도하였고, 사나운 개들을 달려들게 하여 온 몸을 물게 하였으며 여자들에 대한 고문은 더욱 잔악했다. 알몸이 되게 하여 석탄난로에 쇠꼬챙이를 달구어 찢꼭지를 찌르는가 하면 손톱을 뽑아내기도 하였다.

3·1독립운동에 대하여 일제의 잔인한 보복의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제암리 학살 사건'을 들 수 있다. 1919년 4월15일 오후 2시경 일본군 보병 제 78연대 소속 아리타·타오케 중위가 이끄는 일본군 30여명이 제암리 부락을 포위하고 안정옥 등 22명을 체포하여 제암리 교회에 감금하고 문과 창문에 못을 박아 나오지 못하게 하고는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교회에 방화하였다. 김정현·노경태 두 사람은 벽을 파괴하고 뛰어나와 김정현은 밖에 있던 부인과 함께 고주리 쪽으로 피신하려 하였으나 일본군의 총격으로 김정현은 현장에서 죽고 부인은 관통상을 입어

이튿날 새벽 자택에서 사망했다. 일본군은 또 부락에 불을 지르고는 고주리 부락을 포위 습격하여 김광열 등 6명을 체포하여 군도로 난도질, 모두 살해하여 노적거리에 불을 질러 모두 화장해 버렸다. 이 사건으로 제암리에서 23명, 고주리에서 6명 모두 29명이 참살당하였으며 이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 미국신문에 보도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장면. 3.1운동 이후 학살은 더욱 심해졌다. (자료제공:역사편찬회)

정리를 마치며.....

우리는 이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왜 일제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는가. 또한 오랜 인옥에 핏빛기며 얼마나 애타게 조국광복을 갈망했던가를 바로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애국선열들은 그들의 부모, 형제, 자식까지 외면하며 오로지 조국만을 위하여 산화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우리들은 어떠한가? 지하에 계신 선열들의 그 뜨거운 피가 채 식기도 전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은 개인의 총족만을 위한 사회의 혼란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의 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되겠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였는가를 알고 그것을 교훈삼아 올바른 내일을 위하여 전진해야 할 것이다.

5천년 역사상 민족 정통적 민족정기의 발로로써 일제 침략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우리 민족!

조국 광복을 위하여 전생을 초개같이 바친 신 3천여 애국선열들의 숭고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민족의 대외와 정기의 소재를 밝히고 우리 후세들이 걸어나갈 앞날에 다시는 이러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화제의 신간

李道源 求道記
신국판/408면 · 값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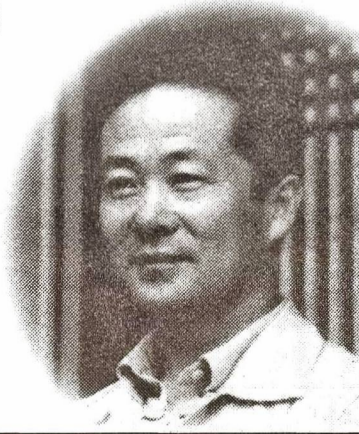
그냥 갈 수 없는 길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복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인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하여 자연과 인생,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진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픈 이들에게 그 진솔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이 책은 불교와 처음 인연한 이야기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내듯 진솔하게 써내려간 이도원의 자전적 구도기로, 책에 담긴 글들을 읽다보면 그냥 갈 수 없는 길, 깨달음의 ; 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은이 이도원(李道源)은 1945년 경남 진주생으로 1975년 청담 스님의 명상목을 읽고 받심. 1980년 범어사에서 성운지호(聖雲智曉) 스님께 수계. 재가불자로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초대 이사장, 부산불교고등학교총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통개량한복 '고운 우리 옷'의 대표로 경남 천성산 대적선원(大寂禪院)선도회장의 소임을 맡아 그 빛을 나눠가고 있다.



불과출판부 대표전화: 420-3200
팩시밀리: 420-3400

임진왜란의 총체적 역사 속에서 선조들의 국경정신과 보살사상이 오늘, 다시 되살아 난다.

사명대사

저자 노경식

왜구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나라와 백성을 구해 낸 한민족 역사의 큰어른!!!

임진왜란의 승병활동을 우리나라 최초로 생생하게 총정리한 결정판 - 승병대장 사명당과 서산대사를 비롯하여 영구, 처영, 의암, 경현, 인오, 해안 등 고승대덕과 이름없이 죽어간 수많은 승려들이 불꽃 같은 삶과 아름다운 비화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신국판/각 288면·상·중·하 각 정가 8,000원

문은넷 TEL. 02) 2278-9860-1 FAX. 02) 2274-3243

BBS에서 절찬리 극화 방송되었던 '고승열전'이 장편 역사소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나아갈 방향 ②

자성학교 활성을 위한 방안

지난 호에서는 자성학교 활성화와 전담독립기구설치를 제안했다. 이번 호에서는 자성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전국 사원 가운데 자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원을 파악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조사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운영 중인 자성학교와 설립을 준비하는 자성학교에 대한 운영방법을 달리 해야한다. 즉 이원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 자성학교는 종단차원에서 이끌어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운영방안이나 프로그램을 사원차원에서 개발하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의 독립기구의 전담 요원이 자성학교가 있는 사원을 순회하며, 프로그램 전수와 공동운영을 실시해주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운영 기술을 터득케해야 한다. 또 중앙 차원에서 교구나 전체 자성학교가 참



▲ 어린이 불자들을 위해 예절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어린이 수련대회 장면)

가하는 일정기간의 법회를 열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고, 상호간 정보교환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분임토의를 통해 자성학교 스스로 문제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성학교를 운영할 지도교사 양성이 제일 큰 문제이다. 요즘은 같은 시기에 젊은 사람들

‘무조건’의 신심이나 봉사만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처우가 전제되지 않고는 제대로된 청소년포교는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해야하고 적극적인 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마땅히 신심 없는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흥낼 수 없는 불사이다.

그만큼 자성학교 교사하면, 본인의 신심은 말할 것도 없고, 뚜렷한 종교관을 견지해야함은 필요불가결의 절대조건이다. 그러나 이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처우문제’이다. 때에 따라서는 2차적인 부분이 1차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하고, 어떤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신심과 처우는 마땅히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먼저 확립시킨 후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어디서 어떤 사람을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각도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그만큼 운영방법이 좋고,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해도 이를 운용할 사람의 기본자세, 사고방식, 심성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사람을 쓰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인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형방법·제도 연구가 또한 필요하다.

신행수기 (2)

마음의 인식 - 진언염송

밀인사 최경란 보살



나는 다시 건강이 나빠져 이번에는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였다.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증세가 나타나면 곧 쓰러질 것 같고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혼자 있다가 두려워 나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에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혈압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다시 절을 찾게 되었다. 열심히 불공을 하면서 나의 성품을 깨닫고 진실한 참회를 하였다.

나약하면서도 교만하기 쉬운 이 증생은 그 때부터 차차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깊은 참회와 불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조금씩 생활 가운데 실천으로 옮기는 진전이 있었다.

생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아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서 함께 나의 마음속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느

큰 변이 있을 뿐 했다. 사위가 공부하던 고시촌에서 다른 절간으로 방을 옮기던 그날 바로 그 방에 연탄가스가 새어서 새로 들어온 사위 후배 한 명이 가스에 죽고 한 명은 중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주위 모든 사람은 그러한 변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어찌 부처님 공덕이 아니겠느냐며 그때부터 사위도 부처님의 가지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진실한 불제자가 되었고 나 역시 ‘하면 된다’는 신념하에 성심 성의껏 시간적 정진불공도 하여 마침내 5년만에 합격하였다.

“선인선과”라는 가르침을 나는 믿는다. 착한 인을 지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증생이기 때문에 자만심과 우월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시기 질투와 탐하는 마음이 가

불공, 그것은 나의 성품을 깨닫고

진실한 참회를 하는 것

끼면서 나는 나의 좁은 성품을 조금씩 넓히며 해탈의 의미를 그나마 어렵듯이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를 말씀하신다. 모든 것은 마음 속에서 뜻을 세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이다.

나는 조금씩 깨달음을 얻으면서 너무 기쁘고 전에 느끼지 못하던 진리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다. 사위나 자식들에게도 이 좋은 진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에서는 내가 체득한 이 순수한 믿음을 통한 기쁨과 부처님의 공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에 당시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던 사위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쳤다. 옆에서는 친구나 동창들이 속속 합격하였지만 본인은 계속해서 합격하지 못했다. 자주 관상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관운이 없다고 나왔다. 그러나 우리 절에서는 그런 것은 그릇된 길이라고 사도라 하였다. 따라서 그런 미신적인 것을 못보게 하였다. 나는 직심으로 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주변의 구구한 말에도 이랑곳 없이 성심 성의껏 불공을 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불공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모르는 듯 별 호응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시지 않기 때문에 매일 매일 몸과 입과 뜻으로 죄를 짓는다. 그와 같은 것이 죄인 지도 모르기 때문에 화의 불길로 몸을 태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참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자기 반성과 깨달음이 생긴다.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자제하고 인내하며 인욕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제 75세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내에게는 많은 값진 부처님의 공덕이 결실로 나타났다. 그동안 내에게 있어 현신적으로 지켜주던 각자님은 이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었지만 가슴속에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기에 곳곳이 살아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등불이 되어 나를 지켜주고 있고, 자녀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병마에 지쳐 쓰러졌다면 모든 것이 헛물어져 오늘날 같은 평온이 아마 찾아오지 않았으리라. 무엇보다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자만에 빠질 때마다 채찍질 할 수 있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두려움을 삼고 나약함을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

나에게 부처님을 직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을 새삼 감사한다. - 끝 -

불교설화

입을 걸어차다.

백유경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다. 얼마나 부자인지 동네 사람들이 밟는 땅은 그 부자 것이 아닌 게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자의 환심을 사려고 갖은 아첨을 다 떨게 되었다.

더러운 마당을 말끔히 쓴다거나 부자가 아프다는 소문이 들면 값비싼 약을 부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부자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로 집안은 언제나 북적거렸다. 새로 온 시종이 가만히 보니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입의 허갈이 부자에게 잘하는 것이었다. 들어온지 얼마 안된 시종은 어떻게 하면 부자의 눈에 띈다 고민하였다. 부자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일을 거드는 시종들은 새로 들어온 시종말고도 예닐곱 명 쯤 더 있었다. 그러나 부자의 눈에 띄어 한 밀친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어떻게 하면 부자의 눈에 띈다? 시종은 날마다 그 생각으로 고민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부자가 산책을 나왔다. 시종들은 부자가 산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바짝 썼다. 그때 부자가 침을 뱉었다. 침을 빨자마자 제일 빠르고 가까이 있는 시종이 달려가 그 침을 빨았다. 부자에게

눈에 띄고 싶은 많은 시종들은 먼저 가래침을 빨겠다고 시끄러웠다. 새로 온 시종은 이리다가 평생 부자의 눈에 띄일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빨은 침을 빨리 빨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골똘히 해도 가까이 있는 시종보다는 느낄 것 같았다. ‘웁지, 저 침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빨아버리면 아무리 빠른 시종이라 해도 빨지는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시종은 부자가 침뱉기를 기다렸다.

마침 부자가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침을 뱉으려고 할 때 시종이 달려가 부자의 입을 차버렸다. 침을 빨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입을 차인 부자는 깜짝놀랐다. 얼마나 세계 찾던지 입술이 터지고 이빨이 부러졌다. “너, 이놈 어찌 감히 내 입을 차느냐?” 피를 흘리고 있는 부자를 바라보는 시종은 겁에 질렸다. “주인 어른의 침이 입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면, 곁의 사람이 얼른 빨아버리기 때문에 제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먼저 빨으려고 했던 것이 그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시종이 아무리 잘못을 빌어도 화가 난 부자는 그를 내쫓아 버렸다.

건강상식

골다공증과 여성호르몬

김내과 의원 원장 김옥희



여성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여성호르몬의 분비로 남성과 뚜렷이 구분되는 신체적구조와 생리적 현상이 나타난다.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고 진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등의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 고통스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폐경부터 급격히 증가되는 골소실과 심혈관계통 질환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여성의 골밀도는 30대에 최대치에 도달하여 유지되다가 폐경이 되면서 골흡수와 골생성의 균형이 깨지고 뼈가 점차 약해져 골다공증을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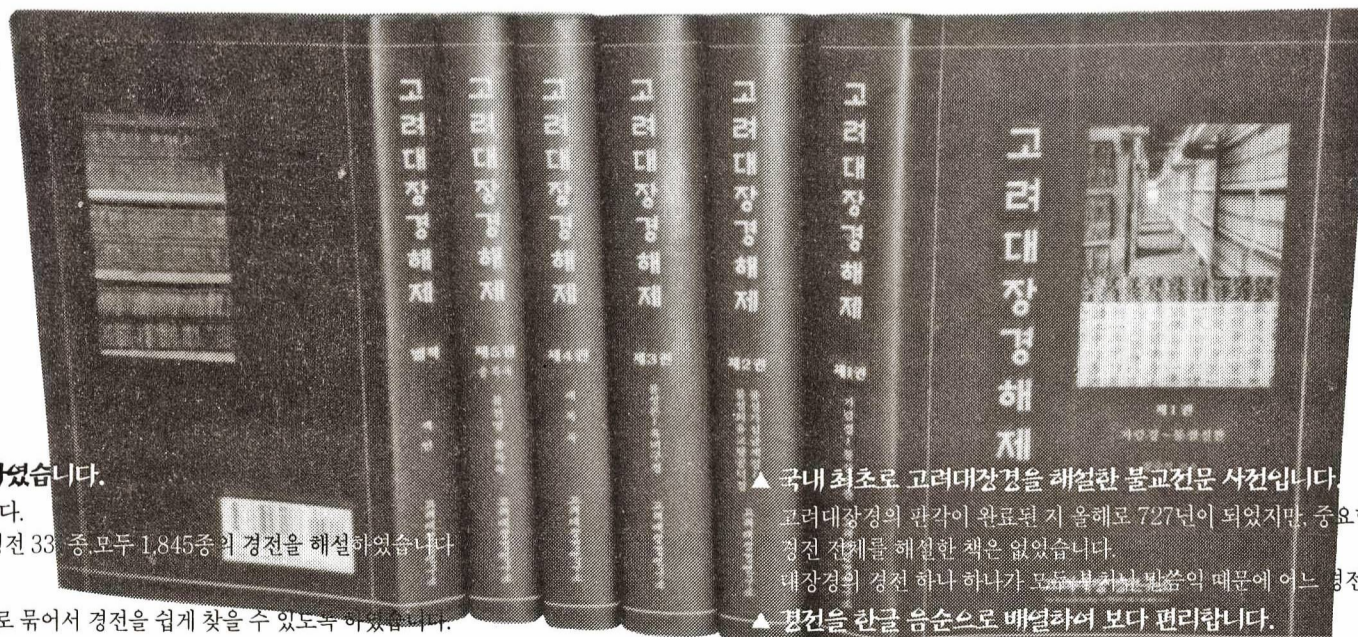
노화가 진행될수록 척추뼈가 녹아내려 쉽게 압박골절이 생기고 뼈가 납작하게 되어 키가 줄고 허리도 굽어지게 된다. 이런 폐경후의 골소실은 폐경후 첫 5년간 가장 심하게 진행된다. 여성호르몬은 심혈관 질환에 대

해서도 보호작용이 있다. 폐경전 여성에서는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해 심혈관질환이 훨씬 적으나 폐경후에는 여성에서도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남녀 발생률이 비슷해진다. 그밖에도 여성호르몬의 부족은 불안, 신경과민, 우울증 등 정서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폐경후 발생하는 여러증상, 소위 ‘폐경기 증후군’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고통스러운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기 보다는 여성호르몬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내분비 질환’의 증상들이다.

따라서 폐경후 여성호르몬의 투여는 폐경여성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며 특별한 금기증이 없는 한 보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호르몬의 보충은 폐경이 초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으며 대체로 10년 정도 투여를 권한다. 일부에서는 여성호르몬의 투여로 유방암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나 그 득실을 따져볼 때 위험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316-3 (영남APT단지) / 053792-5115

국내 최초 고려대장경 해설서

“고려대장경 해제”



고려대장경 해제는

- ▲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1,845종의 경전을 해설하였습니다. 고려대장경에는 1,514종의 경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제에서는 대장경에 입장된 1,514종의 경전과 소경전 333종, 모두 1,845종의 경전을 해설하였습니다.
- ▲ 주제 분류에 따라 경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경전마다 주제어를 주고, 주제어를 몇 개의 범주로 묶어서 경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제 3권, 목록 2권, 색인 1권, 총 6권 1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국내 최초로 고려대장경을 해설한 불교전문 사전입니다. 고려대장경의 판각이 완료된 지 올해로 727년이 되었지만, 중요한 소의경전들에 대한 해설서만 있었을 뿐, 대장경에 입장된 경전 전체를 해설한 책은 없었습니다. 대장경의 경전 하나 하나가 모두 불교의 보배이기 때문에 어느 경전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경전을 한글 음순으로 배열하여 보다 편리합니다. 1,845개의 경전으로 구성된 일종의 고려대장경 해설사전입니다. 보고자 하는 경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글 음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오는 10월 21일 출간 될고려대장경 해제는 1,000질 한정 판매회하여 부득이 전화예약을 통한 주문판매만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장경 연구소

< 예약 및 구입문의 > 고려대장경연구소 (02) 797-0585

온라인 번호 : 상업은행 169-07-096250 (예금주 :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중국교포 정신대 할머니, 고국의 품으로

정신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추진, 지난 2월 12일 방문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원장 해진 스님)에서는 중국에 생존해 있는 교포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고국방문을 추진하여, 지난 2월 12일 방문이 성사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할머니는 현재 중국에 생존해 있는 정신대할머니 가운데 중국 흑룡강성에서 살고 있는 문명금(82) 할머니이다. 중국의 한 양로원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의 고국방문은 64년만의 일로 고국방문은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다.



▲ 정신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여기에 위안부 역사관도 함께 있다

의 집'은 할머니의 입국 소요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중국거주 일본군 위안부할머니 초청기금마련을 위한 3일간의 '사랑나눔기행'을 인사동 살마시오소에서 갖기도 하였다.

한편 고국에 돌아온 문명금 할머니는 지난 14일 부산에서 가족상봉에 이어 꿈에도 그리던 부모님 묘소를 찾고 깊은 회한과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의 죽음을 앞서서 그제서야 잃어버린 64년

의 세월을 찾았던 것이다. 어려움이 많았던 가운데에서도 할머니의 고국방문을 적극 추진해왔던 '나눔'의 고국방문을 적극 추진해왔던 '나눔'의 고국방문을 적극 추진해왔던 '나눔'

교계뉴스

도움 받았던 불우 청소년, 다른 이웃을 위해 봉사

불우 청소년 봉사단 '동심' 발족, 양로원·고아원방문 자원봉사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였던 불우 가정의 소년·소녀 가장 청소년들이 주위의 또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일어섰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소년소녀가장, 영세민 가정의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동심 청소년봉사단'(단장 이지은)이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 서울 용산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청소년단원 및 후원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발 발대식을 갖고, '작은 사랑실천 봉사'와 '청소년 문화활동봉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또 거동이 불편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동심'의 청소년들은 도움의 손길만 받던 처지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매월 2회, 학기 중에는 매월 1회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펼치기로 하였다.

한편 봉사단은 발대식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첨안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청소, 빨래, 위문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봉사단은 서울 용산청



▲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애원 아이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년여성문화원(이사장 진민자)에 본부를 두고 있다.

불교계 각종 학술단체 풍성한 사업

- 『총지중 밀교연구소』- '밀교개론' 편찬
- 『불문연』- '조선왕조실록'·'불교문화사전' 영문판 발간
- 『고려장경연』- '전자사전' 발간
- 『한불연』- '한국불교전래설·국제학술회의' 개최
- 『성철연』- '선사상 학술세미나' 개최

금년 불교계 학술단체에서는 각종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에 있다.

본 중 밀교연구소는 밀교개론 편찬과 밀교 작법의계의 발굴, 아사리 법의 개선 등 중단현안 사업추진과 정통밀교의 수법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은 '조선왕조실록' 2차본인 13권~15권을 발행하고, '불교문화사전' 영문판을 금년에 탈고한 후 내년쯤 발간할 계획이

다. 또 학술시리즈인 '한국 천태사상연구'를 3월경에 영문판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성철선사상연구』(원장 목정배)는 우수연구논문 지원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전개하고 선사상과 관련한 학술회의 개최와 성철스님 관련자료 정리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는 읽기 어려운 한자의 우리말, 영어, 일어 음과 뜻 등을

수록한 '전자한자사전', 불교사전의 전자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자불교사전' 등 다양한 사전류를 발간할 계획에 있다. 전자불교사전은 지난해 출간된 고려대장경 해제 색인집(전6권) 가운데 뽑아낸 1만여개 항목을 토대로 용어설명을 불허 데이터베이스화 될 예정이다.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한국불교의 전래설에 관한 국제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주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지난 2월 27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주최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세계정신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8세기 신라불교와 혜초

(장병삼·숙명여대), '혜초의 구법여행과 왕오천축국전의 가치'(김상영·중앙승가대), '입당구법승과 입축구법승'(여성구·국사편찬위원회)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혜초스님은 구법여행의 완성자로서 중국밀교의 법맥과 정통밀교를 계승한 신라밀교승이었다'고 주장되었으나 불행히도 관련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밀교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 큰 아쉬운 점이었다.

산스크리트어 인도불경 세계 첫 CD롬 제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교수

산스크리트어의 인도불경 문헌이 CD롬 제작되어 나온다.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이종철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

이 CD는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를 로마문자로 바꾸어 재구성한 것으로, 인도불경 및 산스크리트어 연구에 필수적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스승의 초발심

처음 발심 할 때 그마음 그대로...



인선 대법사

종단의 선배 스승님의 평소 가르침인 첫째 진실하고, 둘째 맑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셋째 부처님과 중생들의 은혜 갚는 승직자가 되도록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지공 법사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는 곳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지만 우리들이 부처님의 인연따라 부처님



경원 법사

그동안 종단의 사무직 종무원으로서 소임을 하다가 승단의 한 일원으로서 먼저 오늘의 총지중이 있게 하신 여러 훌륭한 원로 대덕 스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광 법사

귀의 삼보하옵고, 오늘의 법신 비로자나 공존이 있기까지 원로 대덕 정사님 스승님의 깊고도 크신 은혜에 합장배례드립니다. 우리 총지중의 삼밀관행법과 육행실천 해



무공 법사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로 정사님과 스승님의 노고를 본받아 열심히 염승정진과 삼밀관행법으로 육행실천하며 일선중생교화에 더욱 분발하여 부처님의 뜻



시정 법사

1월 29일 아مان 이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승직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지, 내가 승직자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부처님의 계율을 칼날같이 잘 지

우리옷 전통한복을 아름다운 색상과 개성있는 문양으로 멋지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 ▶ 전통한복, 직품한복, 생활한복
- ▶ 신랑신부관례복, 한복웨딩드레스
- ▶ 개성에맞게 Style, 디자인, 색상선택
- ▶ 원단, 지수, 그림 생산 20년
- ▶ 중간 유통과정 생략으로 30% 가격인하



가격표

신부	치마, 저고리 (본견Silk J/Q)	₩420,000 → 290,000
	(본견Silk J/Q 갑사)	₩750,000 → 450,000
신랑	반두루마기 (본견Silk 지수, 칠보)	₩480,000 → 330,000
	(본견Silk 칠보, 양분단지수)	₩580,000 → 430,000
신랑	바지, 저고리 (Poly J/Q 지수)	₩480,000 → 340,000
	마고자, 조끼 (본견Silk 칠보지수)	
신랑	바지, 저고리 (Poly J/Q 지수)	₩530,000 → 390,000
	마고자, 조끼 (본견Silk 칠보지수)	
신랑	(바지, 저고리, 마고자, 조끼 개량형)	₩450,000 → 330,000
	두루마기 (본견 J/Q 황실견)	
	(본견 J/Q 명실견)	₩390,000 → 280,000

우리옷 속진, 김병길 한우

서울 종로4가5번지 한일빌딩 7층
 전화 02.763.6412 / 741.7101
 팩스 02.742.4335
 불교총지중 밀인사 양민우



인물탐방

총지중 노인복지의 새일꾼!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여익구 관장



본 중이 지난 2월 26일 개관한 ‘역삼재가노인 복지센터’의 관장직을 맡고 있는 여익구씨. 동국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을 전공. 불교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를 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상이라고 봅니다. 세속적인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정신적이고 영속적인 것은 종교가 책임지면 불안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특히 노인 복지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오

인 무료 병원을 운영했지요. 재정은 어떻게 충당해 나갈 생각입니까? ▶정부의 재정확충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에 맞추어 ‘회원

진정한 복지는 정신적인 것... 종교계의 몫

세속적인 것은 국가차원의 몫

먼저 복지센터 개관을 맞이하는 소감 한 말씀.

▶지역 주민과 빨리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런데 역삼동에 노인 복지센터 하나 변변하게 없는 현실을 본다면 이번 복지센터 개관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복지센터 개관 준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개관하는 느낌입니다. 구청에서 위탁받아 하는 것이라 구청과의 행정적 견해가 달랐던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센터 개관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평상시 가지고 있는 복지관은?

▶복지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처럼 종교계에서 위탁받는 것은 과도기적 현

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센터 운영계획은?

▶주간 보호소를 중심으로 거동불편 노인인 일반 노인 교실 등을 열어 노인들의 교육, 건강 등을 상담하며, 또한 강남병원과 인근 한의원과의 제휴를 맺어 매주 하루 무료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도움과 즐겁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노인분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생각입니다.

역삼 복지센터 관장을 맡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1993년부터 연꽃 마을 이사를 맡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군포에서 노

제로 운영한다면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 실비를 받으므로 시설 이용에 적극적인 동기 유발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중단에 바라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겠습니까?

▶복지에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주는 종교’가 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신적인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힘든 사람들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복지에 첫발을 내딛었으니 그 발걸음 당당히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btn 소식

케이블TV 채널 티어링제 서울에도 도입

케이블TV의 만상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채널 티어링제’(일부 케이블TV채널을 한데 묶어 전송하는 제도)가 지난해 8월 허용된 이래 최근 부산·경남 지역방송국들이 처음 시도한데 이어 서울·경기 지역 케이블방송국들도 타당성 검토와 함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해질수 밖에 없는 종교방송들은 채널뷰음에서 적자 생존에 놓이게 됐다.

불교TV 시청률 종교방송 3사중 선두 4년 연속 1위

경연년에 허덕이는 가운데에서도 불교텔레비전 시청률이 종교방송 3사 가운데 4년 연속 1위를 고수했다. 또 전체 케이블TV 중 상위권에 속해 불교TV개국이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재정과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BBS 소식

강릉 불교방송 개국 자원부족으로 좌초위기

불교방송의 강릉 지방방송국 설립이 지난 1월 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허가 추천을 받았으나 자원부족으로 개설 자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다만 문화관광부의 허가 유효기간이 3년간이므로 그 간의 자원마련이 문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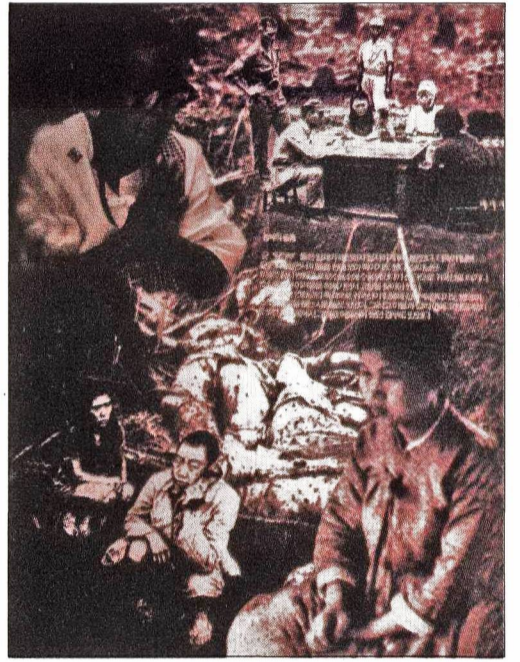
공원의 장

3.1절 80주년 특별공연

“역사의 이름, 어머니의 눈물”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위한 진혼제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야외무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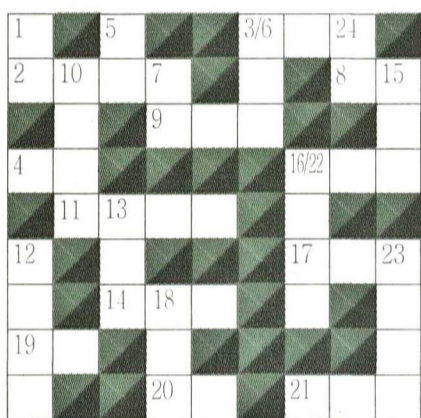
3·1절 80주년을 기념하며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진혼제가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경기도 용인군 퇴촌면에 있는 ‘나눔의 집’ ‘군 위안부 역사관’ 야외무대에서 거행됐다.



▲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 ‘기록의 장’에 전시된 결계

이제는 ‘군 위안부’로 전장에 끌려가 온갖 만행들 겪어야 했던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숫자는 약 20여만명. 이역만리 전방에서 고국 땅을 그리다 끝내 전쟁의 참화 속에 돌아가신 많은 ‘군 위안부’! 이들은 해방이 되었어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버려진 채 한 많은 삶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이 주최하고, ‘하늘소 21’에서 기획하였다. 1부에는 노래공연, 2부에는 추모 퍼포먼스, 3부 진혼굿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밖에 사나위양상불 ‘백’의 국악기와 양악기 합연도 마련되었다.

총지 퍼즐마당



가로글씨

2)****관. 밀교의 관행. 五法成身이라고도 함. 4)불교도가 존경하고 공양할 셋.(불·법·승) 6)중인도 가비라국왕. 출가전 석가모니의 아버지. 8)나고 죽는 것. 인과에 의해 육도를 윤회. 9)티벳을 중심으로 발전한 종교. 어원을 티벳어 blama에서 유래. 여러 민족신을

불보살의 화신으로 생각. 11)바리문교의 근본성전.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 14)부처님이 전생에 중생을 교화한 많은 선행을 모은 이야기. 16)룸비니동산의 이 나무아래서 석존이 탄생. 17)성문 4과의 하나. 예류과의 범명이며 무루도에 처음으로 참례하여 들어간 지위. 19)주로 불·보살의 이름을 말한다. 과명, 과호, 과상**등으로 일컫는다. 20)은행에 가려면 이것이 있어야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1**갓기. 21)불국사에 있는 다리. 사바세계에서 부처세계로 간다고 한다. 청운교와 ***.

세로글씨

1)수행의 차례를 밟지 않고 단번에 깨달음에 이르는 것. 3)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받고 그 힘에 의해 극락정토에 탄생할 것을 발원하는 불교의 한과. 5)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보는 것. 참 자

기를 알게 되는 것. **성불. 7)삼국시대 세 나라 가운데 하나. 고구려, 백제, ** 10)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 ****하화중생. 12)항삼세. *군다리·대위덕·금강아차. 13)물체가 빛을 가리어 반대쪽에 나타나는 현상. 15)이 나무 사이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18)육신통의 하나. 타인의 마음 속 생각을 모두 알아내는 힘. 22)아미타경과 범명이 같기 때문에 아미타경을 소經 이것을 大經이라 함. 정토삼부경 가운데 가장 큰 경. 23)석존 재세시 부처 20부과가 분열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불교. 초기불교. 24)목숨이 다하여 다른 세계에 가 태어나는 것. 극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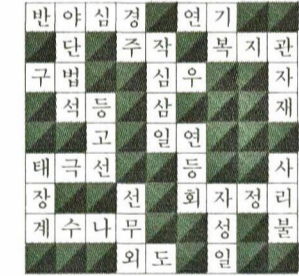
※ 3월 31일까지 총지중보 퍼즐마당 담당자 앞으로 관제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중보법정내 총지중보사

신간안내

정혜경 『반가사유상 연구』

국보 제83호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을 위시한 반가사유상에 대한 연구 학술서가 나왔다. 정혜경씨(동국대 강사)의 ‘반가사유상 연구’가 그것. 이 책은 반가사유상의 연원과 특징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1만 5천원.

지난호 퍼즐정답



▶ 지난호 총지퍼즐 정답자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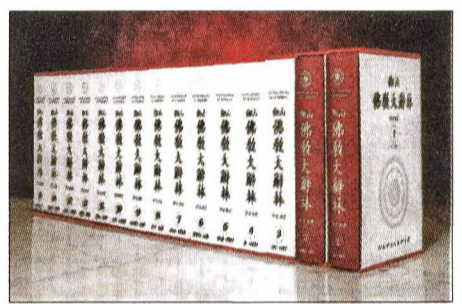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8 윤혜영
- 울산시 중구 태화동 31-2 이은아

출판특집

세계불교용어 총망라, ‘伽山佛教大辭林’ 출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전15권 중 1, 2권 편찬완료

불교의 대백과사전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스님)에 의해 편찬되었다. 일반불교술어·세계불교술어·한국불교술어를 총망라할 불교대사전 ‘가산불교대사전’이 바로 그것.



▲ 전 15권으로 발간될 『가산불교대사전』

지난 1982년 5월에 착수하여 1991년 6월 본 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편찬작업에 들어가 전 15권 가운데 1, 2권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 불교대사전은 불교사상 및 문화 일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불교사

전의 범주를 근본 불교술어는 물론, 범불교권 국가에서 특수하게 변형·토착화되거나 새로이 창출된 각종 술어도 포함된 것이 큰 특징이다. 또 한글순의 표제어 표기, 표제어마다 한자어·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벳어 등의 원어 표기, 인도불교 시대 순의 표제어 서술, 국가지역순의 항목 기술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사람은 15만여 항목, 본책 13권, 총15권 규모로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간행될 계획이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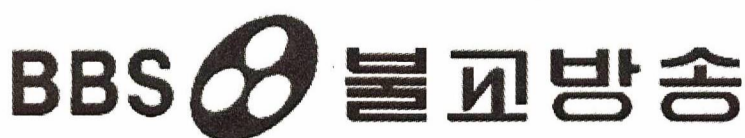
“불교방송 후원회에 동참합시다”

- ◆ 지로 용지번호 : 8003478
- ◆ 은행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25-0020-943
 - 신한은행 189-13-03929-3
 - 농협 069-01-238223

예금주 : (재) 불교방송

불교방송을 새창합시다.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한 인간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화화를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기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갈 것입니다.



서울 FM 101.9MHz · 부산 FM 89.9MHz · 광주 FM 89.7MHz
대구 FM 94.5MHz · 청주 FM 96.7MHz